

1 강. 뉴욕의 전설, 빅터 & 샬리 간츠 컬렉션
(Victor & Sally Ganz Collection)

정윤아

세기의 대표적인 단일 소유자 컬렉션 경매를 소개하는 이번 시즌 강좌의 첫 번째 강의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재스퍼 존스, 로버트 라우센버그, 프랭크 스텔라, 에바 헤세의 작품 등 대표적인 미국 미술가들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컬렉션하여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소장했던 빅터(1913-1987)와 샬리 간츠(1912-1997) 부부의 컬렉션을 소개합니다. 의상용 보석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한 빅터는 사실 다른 유명 컬렉터들에 비해 부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미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 미술에 대한 남다른 혜안과 열정으로 최고의 컬렉션을 형성했고, 이들의 컬렉션은 1997년 샬리의 사망 이후 경매에 출품되어 단일 소유자 컬렉션 경매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경매 내용

일시: 크리스티 뉴욕 1997년 11월 10일
출품작 수: 총 58점
낙찰가 총액: 약 2억 650만 달러 (추정가 총액: 1억 2,500만 달러)

컬렉션 주요 미술가 및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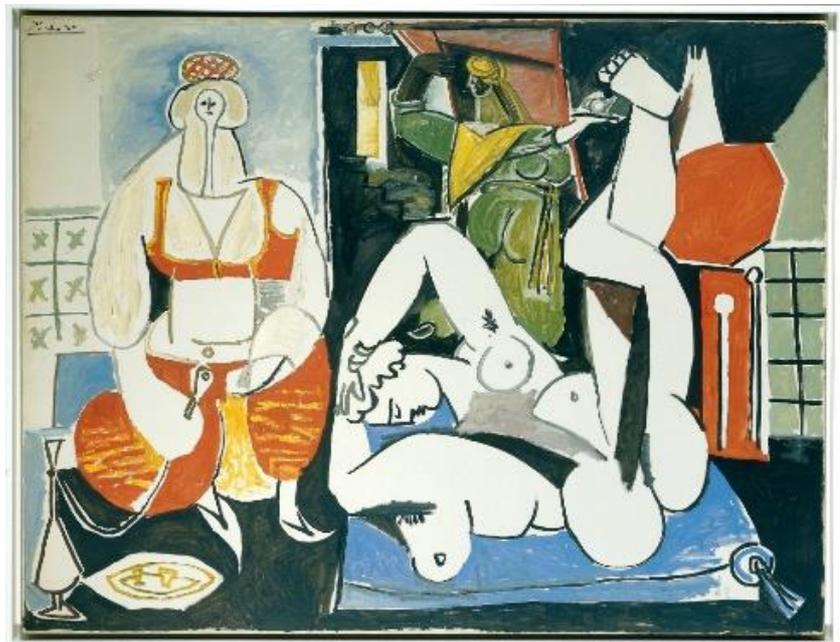
1956년 빅터는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전시회 개막을 위해 전설적인 파리 딜러 다니엘 앙리 칸바일러를 방문,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시리즈(1954-55) 전체를 사겠다고 제안했고, 15개 작품을 212,500달러에 구매한 후, 나중에 10점은 138,000달러에 판매하여 구매 가격의 일부를 회수하고 가장 좋은 5개를 소장했습니다.

정윤아

현재 크리스티 홍콩 부사장(Vice President)이자 20/21세기 미술 전문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재직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미학과 연구 과정을 거쳐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예술경영 석사를 취득한 후, 이화여자 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에서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 매체예술센터 등에서 근무하였고, 귀국 후 서울에서 큐레이터, 아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상명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뉴욕 미술의 발견』(2003), 『미술시장의 유혹』(2007) 등이 있다.



알제의 여인들 (버전 "O") Les femmes d'Alger (Version "O")



알제의 여인들 (버전 "H") Les femmes d'Alger (Version "H")

빅터가 간직한 나머지 5 개의 "알제의 여인들" 중 하나는 버전 "O"입니다. 1997 년에 이 작품은 유럽의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런던 딜러 리비 하우이(Libby Howie)에게 3,190 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후 2015 년 5 월 크리스티 뉴욕에서 1 억 7,940 만 달러에 팔려 당시 경매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되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카타르 왕족인 알 타니(Al Thani) 가문의 일원이 구매한 이 그림은 여전히 피카소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경매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입니다.

버전 "H"는 1997 년에 715 만 달러에 팔렸고 현재는 스위스의 나마드(Nahmad) 가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960 년대에 간츠 부부는 더 이상 피카소를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첨단 미국 예술가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네오 다다(Neo-Dada)'라는 이름으로 미술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b. 1930)와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작품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주요 작품을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4 년에 그들은 딜러 레오 카스텔리로부터 숫자가 줄지어 있는 그림인 존스의 "화이트 넘버스(1959)"를 15,000 달러에 구매했고, 이 작품은 소장품 경매에서 790 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화이트 넘버스 White Numbers, 1959

빅터와 셸리 간츠가 사랑한 또 다른 미국 미술가로 에바 헤세(Eva Hesse, 1936-1970)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빅터와 셸리는 1968 년 뉴욕의 피쉬바흐 갤러리(Fischbach Gallery)에서 처음으로 이 젊은 예술가의 미니멀리즘 작품을 접하고, 즉각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 년 후인 1970 년에 헤세는 34 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일시

2025년 4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에바의 활동 경력이 비록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에바의 예술을 계속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샬리는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그녀의 삶은 매우 짧았고, 오늘날 세상에서 그녀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어느 시점에 그들은 에바 헤세의 "Unfinished, Untitled or Not Yet"을 구매했습니다. 이 작품은 염색한 어망 가방 9개, 투명 폴리에틸렌, 종이, 모래, 면 끈으로 만든 1966년 조각품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당시 기록적인 가격인 220만 달러에 팔렸는데, 추정 가격은 70만 달러였습니다.